

◆교회목표◆

신랑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와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골로소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오늘은 맥추감사주일

삶의 첫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감사로 찬양예배시 호산나찬양대에서 감사 찬양



오 늘은 맥추절을 기념하는 감사주일이다.

맥추절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중 지킴던 3대 절기 중 두번째 절기로서 칠칠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절기는 또한 거두어 단을 묶는 절기라는 의미에서 추수절로 불리기도 하며, 회막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일이라는 의미에서 오순절(오십일째 되는 절기)이라 불리워진다.

그리고 신약에서 맥추절은 첫열매로서의 제물을 뜻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기념되었다. 이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이니라'고 말씀하신 명령에 근거하고 있다.

지리적인 환경과 현실적인 여건상 구약의 맥추절이 신약의 모든 나라, 모든 교회에 적합한 절기는 아니다. 그러나 한 해의 만을 보내면서 기념하게 되는 '감사의 주일'이 있음으로 성도들은 지나온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은총을 돌아보고 감사의 생활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의 기념일을 통해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한나 중에 감사함으로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총을 덧입을 수 있어야 하겠다.

한편, 오후 찬양예배시에는 호산나찬양대가 준비한 감사 찬양의 시간을 갖는다. 호산나찬양대는 '내가 주를 찬송하리라'의 4곡을 연주할 계획이다.

제4차 성찬식 거행

오늘 1-5부 예배시



오늘 1-5부예배시에는 1998년도 제4차 성찬식이 거행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성찬식을 통해 충현의 모든 세례교인들은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은총을 힘입을 수 있어야 하겠다.

98 단기선교

중국1 및 방글라데시팀 무사 귀국

지난 6월 29일(월)과 7월 4일(토)에 각각 중국1팀과 방글라데시팀이 단기선교 사역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였다.

중국1팀은 음식이 맞지 않아 여러 대원이 배탈을 하였으나 중국 본토인인 한족 및 조선족 교회들을 방문하고 일대일 개인 전도를 통해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준비해간 중국어 성경책을 전달하는 등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단기선교를 잘 마쳤다.

또한 두 명의 조를 이루어 미지의 지역으로 직접 전도 전략을 가지고 떠났던 방글라데시팀은 떠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한 기도와 훈련과 준비에 걸맞는 열매들을 거두었다는 소식이다.

이들의 선교 사역 보고는 앞으로 주 간중회에 연례회 예정이다(4면 참조).

농어촌전도대 훈련

오늘 3시 30분 베다니홀

파송예배는 7월 12일

오늘 오후 3시 30분 베다니홀에서는 98년도 여름 농어촌 전도대 마지막 훈련과 기도회가 진행된다.

고동부와 대하부, 청년부 그리고 각 교구에서 파송되는 전도대원 전원은 이번 훈련 및 기도회에 참가하여 성실한 준비를 기할 수 있어야 하겠다. 현재 각 전도대는 주중에도 모여 전도전략을 짜고 물품을 모으는 등 준비에 분주한 상황이다.

한편 다음 주일(7월 12일) 찬양예배는 이들을 위한 파송예배로 드려진다.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의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열매로 돌아온 헌신

기도원에서 보낸 김자와 열무

각 교구별로 기도원에 들어가 영성훈련을 하면서 심고 가꾸었던 감사와 열무가 교회 식당에 전복 배달되었다.

교회 식당을 풍성하게 만든 이 감사와 열무들에게는 심은 대로 거두는 고귀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 열무들은 이미 김치로 담가져서 지난 주일 국수와 함께 성도들에게 제공된 바 있다.

충현의 성도들은 복음의 씨앗도 동일한 원리로 뿌려지고 맺어짐을 기억하면서 복음 증거의 사명에 계속 정진할 수 있어야 하겠다.

알려드립니다

아침식사제공 변경

그동안 새벽기도회 후 직장인들을 위해 제공하던 아침식사가 7월 6일부터는 빵과 우유로 바뀝니다. 이는 직장인들에 한해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성도님들에 감사의 박수를!

기도하실 분은 갈릴리홀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 24시간 개방하던 교육관 107호(사랑부실) 및 권사기도대기실(권사기도실 앞방)이 여름수련회 및 성경학교 숙박을 위해서, 또한 교회 차관차원에서 7월 6일부터 폐쇄될 예정입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갈릴리홀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도위원회 상반기 회계감사

전도위원회 각 지회는 상반기 회계감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하시어 아래와 같이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간: 7월 마지막 주일까지
- 시간: 매주 일요일 11시 - 오후 4시 30분
- 장소: 선교관 4층 전도위원회실

돌아오는 선교팀들에게 기쁨과 격려의 박수!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고 나선 선교지에서 비ழ땀을 흘렸다. 그리고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교회에 도착하고보면 너무나 쉼(?)하다. 감사와 격려의 사람으로 등을 두드려 주는 동료와 어른들의 손길이 참 그립다.

모든 보상은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겠으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사랑으로 격려하라고 명하기도 하신다. 선교팀들의 귀국 일정을 잘 파악하였다가 이들을 기쁨과 감사와 격려로 맞이하는 성도들의 손길이 줄을 잇기를 기대한다.



김 창 인 목사

감사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이사야 25:1-5)

“하나님은 기사를 옛날과 지금과 영원토록 행하시고,
세상 권세자들의 교만을 낮추시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문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 나옵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1. 감사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1절)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탁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면, 하나님은 어떤 주인이십니까?

① 하나님은 우주의 만물을 지혜와 권능으로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집이나 물건의 주인 행세를 하지만 창조자로서 주인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이용할 수 있으나 그것을 자기만 들었다고 할 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만드신 분이십니다.

②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섭리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빼앗는 자도 있고, 또 사람들은 제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의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아십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 더 나빠지는 것을 아시고 권능과 지혜로 하나님과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면 벌이 날아와 구경하고 꿀을 얻어 먹고 갑니다. 그러면 벌은 공짜로 꽃 구경을 하고 꿀까지 대접을 받게 갑니다. 벌들은 공짜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꽃구부를 벌에서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옮겨 줌으로써 꽃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아름다운 꽃에 웃을 일인 벌이 누구이며, 이 꽃 속에 꿀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이며, 그 꽃을 구경하고 또 꿀을 얻어서 꽃구부를 운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분이 누구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세밀하게 섭리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섭리하시는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③ 하나님은 만물을 심판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주인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들을 합부로 쓰

말고 돈 한 톨, 쌀 한 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인간들은 흔히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지만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만든 자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내용을 다 아는 자도 아니고 내가 그것들을 심판할 권세를 가진 자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맡겨 주시는 동안에 잠시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청지기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2)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1절)
하나님은 돈이 많은 사람의 하나님도 아니고 세력이 많고 사탄의 사람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세력이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택함을 입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니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둘째,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신 뜻입니다. 인간들은 공연히 내 것 내 것 하며 싸우지만, 사람 노릇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셨다가 무진장으로 주십니다.

셋째, 성공의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신 뜻입니다.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성공하기를 원하면서도 실패하는 길을 갈 때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면 성공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넷째, 나를 위하여 천국까지 준비하신 분이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서 영원히 기쁨 하늘나라까지 준비하시고 바로 살라고 부탁하십니다.

2.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의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1절)

(1)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합니다

“… 내가 주를 높이고 …”(1절)
주님을 높이려는 말은 주님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 앞에서, 더 나아가 천주와 악마 앞에서까지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말 한

마디를 해도 “아, 예수님은 사람이 옳구나” 이렇게 되어야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잘못되어 “예수쟁이들이 뭐 재래?”라는 말을 들으며 주님의 이름에 욕을 둘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비록 돈이나 권세는 없어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 앞에선나 예수님을 증거하며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도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어디에서나 하나님만 의지하였고 언제나 하나님만 자랑하였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독특해서 꿈을 해석하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므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세웠습니다.

(2)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합니다

“…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1절)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만 자랑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대할 때에는 언제나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이 신자의 생활입니다.

(3)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하나님은 기사를 옛날과 지금과 영원토록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 주는 기사를 옛적의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1절)

하나님은 만세 전에 당신의 주권으로 행하신 기사의 일을 선지자를 통하여 공포하셨는데 하나님은 진실하시므로 그 일을 계속하여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런 진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② 하나님은 세상 권세자들의 교만을 낮추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이루시며 건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2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성도를 핍박하는 모든 세상 성읍의 운명은 무더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적 힘과 인위적 기술을 자랑하며 군사들의 수가 많아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던 많은 성읍들을 폐허로 만드십니다. 피조된 인간이 어찌 천군천사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상 권세자들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③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 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4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언제 어디서나 보호하시고 그 대신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음이 괴롭히고 모함하는 자들을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강하게 하시며 또한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3.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은 일시적인 관리자임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조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법사를 의논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나와와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모두 주시는 분이시기 내가 가난하다고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므로 그 길에 순종해야 성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세상보다 더 좋은 곳까지 준비하신 분이시니 저와 여러분은 주인되시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도신 것을 감사하고 남보다 더 사람에게 자랑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여 잘못된 회개하고 조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따릅니다

(요한복음 21:18-19)



김성록 목사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말씀이 진정한 신앙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늘 그분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고함시다. 또한 언제나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뜻과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따릅니다. 그분의 음성을 경청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우리들의 삶 전체를 통해 그분을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의 통솔은 예수님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가진 이들 중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들의 모든 의지와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길을 순종하며 살자는 말씀으로 설교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간단 명료한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시되거나 오해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각이 관계된 이 말씀을 다시금 깨닫고 가슴 깊이에서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인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적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의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이 일어 주시는 줄과 협력하는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그는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길뿐입니다.

옛본성이 새 본성의 지배받아야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위장한 채,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을 내리고 또 배려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까닭에 우리의 본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새로운 본성으로 의해서 나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 본래 말씀

이 기록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베드로를 찾으신 예수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난 삼년 동안 자신이 전심을 다해 예수님께 순종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상을 보냈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고분받고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자신의 의지가 앞선 베드로의 모습을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병정의 귀를 베었습니

다. 두려움 가운데 목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바꾸려고 고집을 부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정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속에서 그는 죄의식으로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닮은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그분을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

다. 갈릴리 바닷가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디베라 바닷가의 베드로는 여전히 물고기를 잡는 일에 매

여 있었습니

다. 그때, 예수님께서

는 베드로와 또다른 제자 여섯 명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 베드로에게 친히 질문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 대답합니다. “그러하

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

시나이” 베드로가 대답할 때마다 예수

님께서는 “네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

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사

랑한다고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세 번씩

이 같은 질문을 하는 것에 죄책감

을 느끼며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삶 속으로

그러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 네가 스스로 띠 띠고 권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너 내게 내 띠 두르고 원히 아리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에 대하여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18:19절).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장차 베

드로가 겪게 될 일들을 그대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삶 전체는 이제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삶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의 때를 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모든 날과 그가 남아있지 않아야 할 정계선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의 모든 제자들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롬 14:8-9). 베드로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의 죽음을 정하셨고 주관하셨습니다. 저의 삶도 온전히 주께서 주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을 택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때로부터 자신에 대하여 미리 예언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

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같이 나

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아라”(베후 1:14). 베드로는 자신의 운명을 깨닫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결국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

습니다!

따르도록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사도들이 자신의 사역의 결실을 아는 것은 참으로 유익하고 진지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더욱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서 곧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과 생재, 그리고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보다 나은 새 삶을 위하여 자신의 의지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은 죽고 그리스도의 뜻이 그

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발자취를 좇았습니다. 그는 강한 의지의 소유자였으나 어떤

과 같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리스

도께서 그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진지하고 중대한 말씀에 의해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전부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다

사랑하는 총현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삶을 주관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은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십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곳이 되어 온전한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장조주이십니다. 그들은 전능하십니다. 그들은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서 이 말씀을 외칩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빌 1:21)! 이 말씀을 진심으로 이해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일과 우리 자신의 일은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온전히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권능과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권능만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는 말씀을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면 우리의 뜻과 의지는 사라집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잃도록 우리를 위하여 다 해로 되게 됩니다(빌 3:7). 순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말씀이 진정한 신앙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침에 주님과 함께 눈을 뜨고 하루를 그분과 함께 지내며 밤에도 그분과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늘 그분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고함시다. 또한 언제나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뜻과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따릅니다. 그분의 음성을 경청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우리들의 삶 전체를 통해 그분을 따릅니다. 순교를 따르며 우리의 삶은 그분의 손에 맡기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빛나는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M**

스리랑카 단기선교팀

주의 능력을 부으소서!

이창주 (청년부)

이 도양 위에 떠 있는 섬나라, 인도 대륙이 눈물 많은 땅을 떨어뜨린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눈물 모양의 섬, 실론의 고장, 보석생산국, 그리고 불교와 다른 종교의 신이 공존하는 나라, 아름다운(Sri) 땅(Ranka)이라는 의미를 가진 땅. 이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이미지들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민 14:7-8)고 고백했던 것처럼 외적으로만 아름다운 땅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이 되기를 소망한다.

청년부 스리랑카팀은 이 고백과 소망을 가지고 모여 준비하고 있다. 모임은 매주 토요일에 가진다. 먼저 청년1부 단기선교팀인 스리랑카, 중국2, 몽골팀이 먼저 모인 후 각 팀별로 따로 모여 중보기도, 언어훈련, 국가정보연구, 기타 준비 등을 하고 있다. 6월부터는 금요일로 모임을 확대하여 찬양, 율동, 드라마, 시청각, 전도훈련 등 좀 더 구체적인 준비를 계획, 진행 중이다.

가서 하고자 하는 사역은 선교위원회와 외국인 근로자 사역부를 통하여 세례받

고 귀국한 현지인들(약 46명)을 방문, 복음으로 격려하는 일이고, 현장전도, 및 영적 중심지를 방문하여 중보기도(영적 전쟁)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일이다.

팀은 나름대로의 사역 원칙을 세웠다. 즉 무력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팀의 영적인 하나됨을 사역보다 우선에 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일하는 것이다.

선교는 어둠의 세력과 영적 전투이다. 특히 스리랑카는 동남아에서 세 번째로 불교와 힌두교의 세력이 강한 곳이다. 그러므로 기도없이 하는 사역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력으로 진행할 때 우리의 준비는 빨라지며 그때 인간적 노력의 필요성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주님께서 앞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보기도 후원을 잘 모으고 있다. 팀원 1명당 5명 이상의 중보기도 후원자들을 모으고 기도의 불을 지필 계획이다. 여기에 전 교회 차원의 지속적인 전략적인 중보기도 후원이 있어야만 단기선교 가운데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할 것이다.

어느 선교사님의 말씀이 기억난다. "선교는 반드시 주님께서 동행하시야

되고, 우리는 단지 그의 심부름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로 불러 주신 것을 인해 감사로 순종하는 것밖에는 다른 영광과 즐거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기도로 준비하는 일이 이곳에 실제로 와서 현장에서 사역할 때 부딪칠 수 있는 어려움을 없앨 수 있는 지름길이다" 사역을 준비하면서 날씨는 다가고요, 눈에 보이는 뚜렷한 준비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더욱 바쁘다는 생각이 든다. 그때마다 이 말씀이 참으로 가슴에 와닿고 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한다. 사역은 재미있고 은혜롭게 하는 것인데 경험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이성과 결정을 의지하다가 사람의 몫만한 보이고 성령의 능력과 영혼의 열매가 없다면 이것처럼 우리를 좌절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모일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많은 영혼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우리는 단지 주님의 심부름꾼이요, 사역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 때문에 돈을 투자하고 휴가를 드려서 가는 것이다.

주여 연약한 우리 위에 능력을 부으소서!

단기선교 이모저모

덜다 더워

"오늘 날씨가 30도가 넘었다면서?" 우리는 30도만 넘어도 더워 죽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단기선교팀이 간 아프리카 수단은 지금 45도가 넘는단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더위 속에서 충현의 젊은이들이 병원에서 지방 도시로, 남민촌으로 예수님이 진짜인 것을 전하고 있다. 물도 없이 사울에서처럼 마음껏 샤워 한 번 못하고, 게다가 단기선교팀원들의 잠이 늦게 도착하는 예상하지 못한 일까지 겹쳐 사울에서 입고 간 옷 한 벌로 그들은 3일을 지냈다고 한다. 오늘도 사울은 무척 더운 날씨다. 그래서 "덜다 더워"하다가도 수단 단기선교팀원들 생각에 말끝이 흐려지고 만다.

우리 부모님께도 예수님을 전에 주세요

본 교회 외국인 근로자 사역부에는 중국, 인도, 몽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가 약 50명 출석하고 있다. 금번 단기선교지와 맞물리는 지역이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관심과 사랑이 남다르다. 자신은 이 땅으로 복음을 들고 가는 젊은이들에게 주소를 적어 주며 "우리 부모님께도 예수님을 전에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들의 표정 속에 간절함이 배어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민 14:7-8)고 고백했던 것처럼 외적으로만 아름다운 땅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이 되기를 소망한다.



스리랑카를 위해 기도합니다

◆ 전 인구의 1%에도 못미치는 개신교의 복음적인 성도들이, 전국민의 70% 이상이 불교인인 불자의 나라에 뿌리고 있는 복음의 씨앗이 하나둘 나라를 세우는 거저씨와 누룩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 스리랑카 교회는 1722년까지만 해도 전 인구의 21%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던 영광의 시대를 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행위를 않고 이쁨만 유지하는 신앙의 형태 및 토착종교의 발흥으로 인해 1985년도에는 그 비율이 7.4%(그 중 개신교는 0.9%)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도시형 지역에서는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스리랑카의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모이는 폐쇄공동체(게토)를 이루면서, 전도하지 않는 가운데 서서히 믿음의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안인한 중산층으로

절박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떠나가는 사람들 대다수는 불교나 힌두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어서 더욱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서히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실태들을 회개하고 비기독교인들을 말씀으로 얻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아래서 더욱 힘있게 전개되어야 하겠습니까.

◆ 복음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24,500여 지역에 사는 1천 2백만 명의 농촌지역 영혼들과 도시 빈민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먹을 것과 복음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육체의 질병과 생활에 만연한 저능 가난과 더불어 사단의 억압과 자유의 두려움을 함께 받아야 하겠습니까?

나의조국, 도전하는 신앙의 위력 I 힘을 쏟는 믿음의 도전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라!

천 승 혁(대학부 4학년 ·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중)

도전정신

한국 사람들에게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도전하는 정신이 있었다. 이 정신이 있었기에 그 긴 세월동안 수많은 역경과 환난을 뚫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임진왜란, 일제시대, 군사독재 등 수많은 절대세력 앞에서 한국인들은 아이, 어른, 학생, 선생님, 그리고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도 떠나 할 것없이 다 뛰어나와 그들을 대적했다.

교회에서 게임할 때에도

이번 겨울 수련회 갔을 때였다. 오랜만에 한국에 나와 수련회에 참석하니 참 좋았다. 새가족부에서는 날마다 밤마다 게임을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게임들을 그리 많이 하는지, 해도 해도 끝없이 계속 새로운 게임이 나온다. 아무튼 그룹(단체) 모션(동작) 게임인 그런 걸 하는데 모션을 만들란다. 그룹은 모션을 할 때마다 눈에 힘을 주며 한번 해 보자는 분위기였다. 목

이 쉬도록 의처가며 귀엽기만 하던 어린 자매들까지 있는 힘을 다 주어 소리치는 이들의 모습에 잠시 행주 산성에서 일분간을 향해 들을 던지던 용감한 아줌마들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해야 할까?

기도하며 소나무 뿜는 한국 교회의 기도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기독교 기도 문화는 이런 도전정신으로 나간다. 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 뿜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다. 미국 친구들한테 우리는 기도할 때 소나무 뿜는다고 했더니 그들은 '기도하려면 꼭게 할 것이지 소나무는 왜 뿜나?'는 식으로 반응을 보였다. 이것 역시 우리 민족의 도전정신이 만든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기도에 목숨을 걸겠다는 거다.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소나무가 뿜히든, 산이 날아가든 한번 해보겠다는 거다.

우리 나라 성도들의 기도하는 자세만은 정말 알아주어야 한다. 성도 힘을 주고, 주먹 딱 쥐고, 무릎 딱 꿇

고 사생결단의 자세로 기도하는 모습. 시간은 무제한. 모든 걸 불사할 용단이 올 때까지, 사탄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부식질 때까지 굴하지 않는 것이다. 멋있지 않은가!

기도로 돌아온 전기

몇년 전 한국에서 거행된 GCOWE(세계선교대회) 때다. 선교 발표의 도중 음향 시스템이 고장났다. 음향 시설팀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혜성처럼 나타난 한 선교사님께서 젊은이들을 모으시더니 그 자리에서 전선을 붙잡고 끌어 앉아 통성기도를 하셨다. 몇 분 후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온 음향시스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머영-청. 통역자원봉사로 봉사하던 한 형이 그랬다. 이런 일들이야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정말 목숨 걸고 뛰시는 분들, 일반 신식과 불가늠을 향해 마구 돌진하며 장렬히 뛰시는 분들, 또 그 속에서 일했던 산신앙들. 나는 그것들을 좋아한다.

뜻기는 재미있다

강석진
(대학부 7학년)

성 경은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보아야 합니다. 뜻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잃었지요. 저는 너무 짧기에 어려웠습니다.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힘들니다.

한참 사시기 이야기를 하다가 불꽃 튀어나오는 이방여자의 재혼하는 이야기. 어떻게 받아 드려야 할까요? 다른 예지한테 이 뜻기는 어른들이 참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를 섬기는 뜻의 모습 때문이요. 어머니들, 은근히 어디 뜻 같은 머느리감 없나 원하시지요. 고부간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는 말쑥? 그리고 참고로 혼동하지 마세요. 저도 혼동했는데 소동과 고모라를 빠져 나오는 사람은 '뜻'이구요. 여기 나오는 사람은 '뜻'이요. 전에 저는 같은 인물로 착각했다는 것 아닙니까?

"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나 나의 하나님이나 되시리나"(1장 16절)

사사시대의 미가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우리에게 같은 시대의 이방여인 뜻의 이 고백은 신선함을 줍니다.

뜻기의 중심 언저리에는 시어머니 나옴이와 머느리 뜻의 고부간의 친밀감이 있습니다. 나옴이는 머느리를 위해 새 신발 보아스를 만년 방법을 알려줍니다.

"뜻의 시모 나옴이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의 우리의 친족이 아니나 그가 오늘 밤에 타락 당하여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곡하고 기쁨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락 당당에 내려가서..."(3장 14절)

이제 정말 은밀한 유혹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허허. 창세기 때 성경의 갖가지 절흔을 말했지요. 여기 또 다른 절흔을 봅니다. 자매들은 자매들간의 할 이야기가 따로 있다던데 이런 류인가요? 여기서의 대를 이르러는 나옴이의 깊은 신앙심으로 봐야겠지요.

뜻기를 읽다 보면 '기입 무를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이미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성경은 모두 연결이 되어 있기에 다 읽지 않으면 뜻을 이해하기 힘들니다. 그래서 일독을 권하는 것 같아요. 약간의 들은 얘기와 배경지식으로 말을 하면 뜻기는 보통 그 의미가 '구속사의 계보와 관계' 속에 있다고 합니다. 이 계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났기에 그 의미를 두는 것이죠. 하지만 더 말하고 싶은 것은 그 계보에 대한 중요성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입니다. 족보를 따지면 예수님의 족보처럼 보잘 것 없는 족보가 없습니다. 좀 옛날로 따라가면 야곱의 아들 유다가 머느리를 창녀로 알고 동침해서 낳은 자식에서 시작되고, 중간에 가생 라합, 그리고 지금 이방여인 뜻, 또 우리와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윗. 이런 죄인이나 버림받은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백하실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죄인을 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단지 구속사 족보로서의 뜻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더 의미를 두어야 할 뜻기가 아닌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소리없는 사랑의 대화



박 무 미

(권사, 에바다부 심방과장, 수화통역자)

출 4:11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방언이나 커미터거나 논박하는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농아인을 만드신다는 편린 하나님과 길고 오묘한 섭리가 있으신다.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농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신 하나님과 역사를 전개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다. 농아인들도 열 마든지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지난 6월 2일 한국경제신문에 “미국 네브래스카대의 꼽골한 장애인 사랑”이란 기사가 게재되었다. 함께 감명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옮겨 본다.

“범대평양 컨퍼런스 개막식에 청장장애인 케빈 마이언 군(미국 네브래스카대학 회계과 학생)이 참석했다. 놀라운 사실은 이번 대회에 참석한 단 한 명의 청장장애학생인 마이언군의 통역을 위해 네브래스카대학에서는 항공편과 호텔 숙박비를 부담하면서까지 통역자를 보낸 것이다. 마이언군은 “통역자의 도움으로 (중략) 모든 회의의 일정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 토론을 벌일 것”이라며 “이번 대회에서 많

은 것을 보고 듣고 돌아가겠다” 고 말했다. (중략)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 중에 많은 수화통역자들이 나와 농아인들의 귀와 입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 있다. 그러나 수화를 호기심이나 심심풀이로 파악하는 안된다. 수화를 배우려면 철저하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수화는 하나의 엄연한 언어이기 때문이다. 물론 생각보다 어려운 면이 많다. 그래서 배우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이들이 많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배워서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강단에서 소리없는 크고 작은 혹은 감동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는 없지만 손짓으로 전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 아무나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 모습들은 참으로 진지하고 아름답다.

농아인은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자들이다. 계속 부흥되어가는 에바다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드리며 마음에 큰 사랑으로 봉사해 주시는 부장 장로님, 전도사님, 두 부감님, 묵묵히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더불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

“나 큰일 났어” 짧은 한 마디에 분취기는 일순간 긴장감으로 얼어붙었다. 평소 성실하며 배려가 각별했던 김 집사님 댁이 거래처의 어이없는 부도로 인해 연체적 타격을 받고 집마저 경매처분 된다는 무거운 이야기가 나왔다. 함께 한 우리 모두 안타깝기에 발을 동동 구르는 일상이었다. 순간 여러 생각이 교차하는 가운데 “아니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어야지.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나의 마음을 평소 가까이 지내온 이영숙 집사에게 건넸고 기도회 합심할 것을 요청했다. 주일이면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몇몇 집사들과 기도회 합심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일주일 후 주일 마음을 जो이며 교회에 나와 김 집사 부부를 찾았다. 나의 열려와는 달리 무척 밝아 보였다. 더하여 나의 마음을 가운데 소원한 주일 기도의 기초가 제공된다는 희소식도 들었다. 때마침 설립인·군·교정전도회에서 국가 경제 회생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고통을 “기도로 극복”하기 위해 기도모임을 갖고 있던 것이다. 기도회는 오후 3시에서 4시 30분에 사랑부 예배실에서 진행되었다. 기도회는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렘 33:3)는 말씀 그대로 부르짖음이 터져 나왔고 완악함과 적된 본성의 내태와 무관심도 날같이 고백되었다. 무릎을 지어 손에 손잡고 서로의 문제를 놓고 뜨겁게 모든 심령을 불태우는 중보의 기도소리, 이

환경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 주일 오후 기도회의 기쁨 —

이 영 복
(초등부 교사)



것이 전국의 방언이 아닌 가 싶다.

김 집사님은 자라 아들의 평강을 찾고, 이제부터 되어서는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신앙고백을 했다. 종으로 하나님은 이런 김 집사님에게 피할 방법을 주셨다. 평소 소해를 보더라도 신원을 쌓아오던 분이 이곳저곳에서 도움이 이어지고 큰 회사들의 횡포를 피해 소해 거래를 늘리는 거래처들이 자금 회전을 돕는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아픔을 같이 나누며 중보 기도에도 용이 되었던 본인에게도 결혼의 문제로 응답해 주셨다. 목회자의 아내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신대원 졸업 학기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만났을 관계 하였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일점일획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가며 사랑과 정열로물마져 느낀다.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순종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 기도의 줄을 잡고 오며 나아가고 있다. 끝날 기도 가운데 주일마다 뜨겁게 달아오르는 주일 오후 기도회를 통해 합심하며 크나 큰 영적 힘이 더함은 느끼며 재정비와 도전을 받기도 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말씀이 아름다운 현현의 공동체 속에서도 더하여지길 소원하며 환경의 어려움을 만난 이웃들에게 뛰어 넘을 수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초대한다. 환경을 조성하시며 우리의 전인격을 주장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오롯한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이 단

이단 시리즈를 마치면서 -이단을 예방하는 길-

정 현 민

(목사, 16교구·장년부·별조인분도회·도서장학회 지도)

지 금까지 수 개월이 걸처서 초대교회 이단으로부터 세제, 근대 이단 및 미국의, 국내의 이단들의 주경과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말씀에 근거해서 비판하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있는 양의 말씀은 세 이리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며, 그들의 교리를 믿고 따를 때에만 구원이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사회를 떠나 집단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파괴하며, 사회에 큰 불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 교회 공동체에 이단의 깊은 손길이 뻗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를 알고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단을 예방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및 가토로 살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계시하신 신구약 성경에 기초한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성도들에게는 이단

이 결코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66권의 신구약 말씀을 통해 완전한 진리의 길을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성경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한 것들을 그들의 독특한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통교회는 ‘원리강론’을, 전도관은 ‘오묘원리’를, 몸본교는 ‘몸본경’을,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파괴와 진정’을, 여호와의 증인은 ‘새 세계 번역성경’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그것들을 정경으로 삼아 신앙과 생활의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단들의 태도는 성경의 완전경감을 부인하는 태도이며 성경을 가감하는 행위입니다. 이와같은 이단들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영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나 이 책에 기록된 제약을 그에게 붙이지 아니하고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기록한 것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계 22:18-19).

둘째, 미혹의 영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통일교의 문선명은 16세 때에 무신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며, 전도관의 배대선은 신으로부터 성령의 세 피를 받았다고 합니다. 몸본교의 요셉 스미스도 신의 소리를 들었으며,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여타 부인도 17세때에, 여호와의 증인의 찰스 러셀도 17세때에 신비적인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내가 본 천국”의 저자 필리스콜레의 책이나, 이강렬 목사가 어떤 종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주장이 미혹자들의 소리였다는 교훈

을 남겨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다른 음성에서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성도에 대해서 지나치게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무지한 연약한 인간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와같은 인간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속할 때만 인간의 미래가 확실하다면서 잘못된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문선명 집단은 종말이 1960년 1월 6일, 여호와의 증인은 1941년 10월 1일이라고 주장했고, 이강렬은 1992년 10월 28일, 그리고 나운몽은 2000년 4월 5일로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 24:36)

혹함의 세력이 터지지 못하여 사도들의 신앙고백이 고백되어지는 전리의 타계서 시대 계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성도인 우리들이 얼마나 축복된 자들인지 면히 읊조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진리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단적 사상을 끝 맺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 속에서 언제나 진리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롱!

지혜의 소식 / 탐방

지혜의 소식

영아부
주님 사랑 나눌 성경학교

7월 20-21일 여름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하나님께 찬양과 율동과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말씀을 행한 존도사님을 통하여 듣고, 맛있는 간식도 함께 나누며 먹으며, 이두만 전도사님의 명랑교도 듣게 됩니다. 둘째날 역시 찬양과 율동과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간식 후 만들기 특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며 많이 참석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는 기회를 바랍니다. (송혜경 통신원)

유아부

기도로 준비하는 성경학교

유아부 교사들은 여름성경학교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에는 기도원에서 특별기도회를 가졌고, 22-25일에는 성경학교 강습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들은 약화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스러운 성경학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어머니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4, 5세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꼭 유아부로 보내 주세요. (임미춘 통신원)

유년부

지난 달부터 계속된 유년부 소개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어요. 마지막 주인공은 처·과장단이랍니다. 유년부가 자랑하는 것 중 한 가지는 행정위원 및 처·과장단들의 돈독한 화목과 성실한 정재예요. 오순도 총무처장님은 신실하고 겸손하신 분으로 모든 일을 신실함과 지혜로움으로 처리하시며, 오해설 교무처장님은 기도의 열정을 갖고 계시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중심있는 신앙인이시고, 송병렬 생활지도처장님은 헌신적인 열심과 충성의 성품을 지닌 은후하신 분이시지요. 이상일 서무과장님은 진지함과 자신은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분으로 숫자적 통계에 밝으시고, 박옥자 회계과장님은 정경하고 재정적 관리에 뛰어나시면서도 따뜻한 마

음으로 찬양을 잘 부르시며, 윤경자 봉사과장님은 사랑을 밖으로 나타내어 항상 따뜻하고 친한 정성으로 모든 분들을 든든하게 채워 주신답니다. 1부의 귀여운 전사들의 합창을 책임지고 있는 김병선 선생님은 기도하러만 중임으로 찬양하는 열성있는 지휘자이고, 한경숙 선생님은 아름답고도 웅장한 율동의 오르간을 이끌고 있는 대적성반주자예요. 2부 찬양대를 맡고 지도하는 안열진 선생님은 별열찬양대원으로 청년의 열심을 갖고 있는 지휘자이고, 김지연 선생님은 청년의 순수함으로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의 감동을 잔잔히 전하는 겸손한 반주자이시지요.

이상은 유년부 선생님들을 모두 알려 드렸어요. 이분들을 통해서 매주일 운영되는 유년부는 신앙 교육의 신실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통신원)

초등부

안양교회요?

오늘은 여름성경학교 소개를 마치 하려고 합니다. 어린 학생들이지만 도처를 걸을 때나 교회에서 하트방을 가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접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끝나리라 흥취 여행을 떠나지요. 둘째날은 먼저 하나님께의 말씀을 오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형극 시간, 어떤 이야기기 펼쳐질까 궁금하지요? 그리고 서로 알보할 수 없는 성경퀴즈대회를 한 후 흥분된 혼란인 여나나 게임을 하고 흥분되었던 가슴을 찬양과 율동으로 진정시킨 다음 폐회예배를 끝으로 이틀과 하트방의 성경학교를 아쉬움 속에 작별합니다. (이미숙 통신원)

중등부

새다른 성경퀴즈대회

지난 6월 28일에는 성경퀴즈대회가 있었습니다. 1학기 동안 배운 말씀을 기초로 조금은 쉽게 크게 진행된 이번 퀴즈대회는 각 과별로 문항이 다르게 출

제되었고, 성경을 보면서 답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평가라기보다 함께 말씀을 찾아 보고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다스림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지자는 의의였습니다. 각 과가 문제를 맞추기 전 한 학생이 자기만의 반본공부에 대해 소개하는 '3분 스피치'와 중등3부의 자랑 찬양팀의 찬양도 있었습니다. (송미경 통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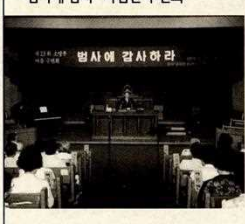
장년1부

IMF를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

장년1부에서는 위기 상황을 신앙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8일 일요일 3주 연속으로 특강을 실시한다. '믿음으로 IMF 상황을 결박하자'에 이어 오늘(7월 5일)은 '기도로 IMF 한파를 극복하자', 다음 주에는 '사랑으로 IMF의 고난을 이기자'에 관해 박형용 목사의 강제가 계속된다.

소망부

'법사에 감사' 다짐한 수련회



6월 29일과 30일 갈릴리호에서 수련회를 열었다. 이번 수련회는 '감사와 기도(법사에 감사하라)'라는 주제 아래 김장현 위임목사님과 이종대 지도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하루 평균 540명의 할아버지, 할머니,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스럽게 진행됐다.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회원들은 28일과 29일에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마음 그릇을 준비하였고, 말씀을 듣고 찬송부부터 노래를 부르는 것을 통해 영적으로 새로운 마음을 얻어 주님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더욱 굳게 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장현 위임목사님의 '나에게 한 번만 기회가 마지막으로 주어진다'라는 특강을 들으면서 회원들은 남은 생을 기회와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태까지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형주 통신원)

새가족부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다시 만납시다'

'예수를 믿는 ○○○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물의 차가운 감촉과 함께 목사님의 손이 머리를 안수하며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권위로 선포되는 이 말씀으로 세례받은 새가족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새로운 의식을 통하여 예수님과 인격적인 새로운 삶을 공적으로 법적으로 시작한다. 이제 각자의 연령에 따라 새로운 교회학교에 배치되어 떠나는 성도들에 대한 서류 정리며 보내 보내는 아쉬움 마음 정리며 교사들의 손놀림이 위수한다. 지난 6개월간 기도 속에서, 생애 속에서 떠나지 않은 성도들처럼 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열려지리라 보내는 사람의 마음은 아쉬움뿐이다. 그러나 아름답게 정경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것을 기대한다. (한숙정 통신원)

15교구

음의 고난 묵상하며 함께 위로한다

직장을 가진 분이나 개인 사업을 하는 분이나 가정들이 실로 어렵고 힘든 시절이다. IMF나, 구조조정이나, 퇴출이나 생각지도 못했던 단어들이나 가정들을 더욱 우울하고 낙담하게 한다. 국가 전체의 일이나 어느때 누구에게 달리지 모르는 파도인자와 각자가 마음을 굳게 하고 추스려 보지만 막상 막힌 가정들과 가정은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목사님은 교구모임 때마다 기도와 위로와 믿음의 권면을 하신다. 음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오늘날 우리들이 당하는 이 고난도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고 고난 후에 복을 얻는 믿음으로 용이 감히나 베풀 받은 것처럼 15교구 식구들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하셨다. (한숙정 통신원)

기쁜 소식의 비밀을 간직하려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였다. 중등2부의 주제 성구는 '하나님의 미려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전 1:25)는 말씀이다.

중등2부는 3개월을 한 학기 단위로 점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중등2부에서 처음 배웠던 것은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이다. 지금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의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배우고 있다. 이것을 공부한 후에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학생으로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알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배우며 자신의 미래와 복음과는 어떻게 연관되어있지 않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될 계획이다.

중등2부는 학생들의 믿음 생활을 가까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교사들의 교육을 중요시한다. 매주일 예배 후 교사모임이 가지는 준비 공부 시간을 활용하여 기도 시간을 가진다. 기도회와 체계적인 본부 공부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늘어나고 말씀을 통찰하도록 학생 앞에서 교사들의 모습들이 믿음 생

탐방 - 중등2부

겸손의 마음 통해
하나님의 지혜 구하는 중등2부

활의 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등2부는 반별, 과별로 한 달에 한번씩 생활에 힘과 용기를 주는 내용을 담긴 사랑의 편지를 발송함으로써 학생들과의 인격적인 접촉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

중등2부에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관리

과가 있다. 각 반의 장기 결석자나 중등1부에서 제적 대상자로 올라온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학생들을 가능한 한 직접 심방하여 학생의 신앙을 파악하고 학생의 신앙을 지도하며 정상적인 교회활동을 하도록 돕는다.

한편 3월부터 6월까지의 1차 전도를

실시했다. 먼저 학교 전도로 중등2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연복중학교 정문 앞에서 격주 토요일 전도를 했다. 또 넓은 양 학교로 장기 결석학생을 심방하고 편지하고 기도했으며, 학생들 모두 태신자를 정하여 모두가 전도자가 되었다. 6월 14일 작은 음악회와 새전구 초창 환영 행사를 갖고 1차 전도운동회를 마무리했다.

학생들이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면회부와 찬양대, 기지단, 연금위원, 성가부 있다. 면회부는 예배를 위해 기도도 준비하고 매주 주보를 읽고 나눠주는 일부터 각행사를 준비한다. 또한 추수감사절이나 방학때 한나시에 있는 장애인 교회, 나그네집을 방문하여 의뢰용품이나 생활용품도 전달한다.

특히 금번 여름수련회를 통해 중등2부는 중등장애인 시설을 방문한다. 예수님의 유언장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장애인 시설을 찾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이번 수련회가 학생들 모두에게 장애를 위한 비전을 품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후 수련회 준비 기도회로 성실히 준비하고 있다.

(글/박명영 기자, 사진/이문구 기자)

교 회 소 식

● 알 림

1. 성찬식/오늘 1, II, III, IV, V부 예배시 있습니다.
2. 맥추감사헌금/오늘 1, II, III, IV, V부 예배시 드립니다.
3. 해외 단기선교팀 / ·수단(6월 27일~7월 10일).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4. 여름수련회 / ·장년2부 6일(월)~7일(화) 함동신학대학원(수원)에서 있습니다. ·주제: 하나님께 인도받은 신앙인 ·강사: 윤영택, 이승수 목사 ·대학부 6일(월)~10일(금) 12:30~13:40 교육관 407호에서 있습니다. ·주제: 세미한 소리가 있을지라
5. 전년1부 불꽃 / 오늘, 12일(금) 주일 12:30~13:40 교육관 407호에서 있습니다. ·주제: IMF를 대처하는 지혜의 자세 ·강사: 박형용 목사
6. 유아원 교사 모집 / 전년도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유아교육을 전공한 분을 모집합니다(유영정학 환영). ·문의: 분당 지하 유아원(554-7054)

● 모 임

1. 정기당회 / 8일(수) II부예배 후, 당회실
2. 장로 화요새벽기도회 / 7일(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3. 안수집사의 월요새벽기도회 / 6일(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4. 감사위원회 월례회 / 12일(다음 주일) 15:30, 선교관 404호
5. 남나전도부 각 교구 연합회장, 부회장 월례회 / 오늘 15:00, 캄빌룸
6. 고정전도회 월례회 / 오늘 15:00, 캄빌룸
7. 주일오후기도회 / 매주일 15:00-16:30, 사랑방 예배실
8. 실업인전도회 목요기도회 / 9일(목) 새벽기도 후, 실업인전도회실
9. 경찰전도회 기도회 / 오늘 16:00, 경찰전도회실
10. 경찰전도회 월례회 / 12일(다음 주일) 15:00, 캄빌룸
11. 안수집사의 월례회 / 오늘 15:30, 교육관 212호
12. 감사회 제1지회 월례회 / 8일(수) 1부예배 후, 사랑방부실

● 남나전도부

1. 베드로 1 / 월례회 및 기도회(부부동반), 11일(토) 19:30, 교육관 109호
2. 베드로 2 / 12일(다음 주일) 교구모임 후, 학원전도회실
3. 요한13 / 11일(토) 20:00, 부천시 중동 연화마을 대현A 1421-103
4. 미리아 4 / 9일(목) 10:30, 캄빌룸

● 결 혼

1. 김창준(김용석 집사, 김진사 집사의 아들, 제10교구)과 김은정(김태준 성도, 강순순 집사의 딸) / 7일(화) 13:00 캄빌룸
2. 고정훈(교방교 안수집사, 한경숙 권사의 아들, 제2교구)과 김혜옥(김정길 장로, 이순업 권사의 딸) / 9일(목) 12:30 캄빌룸
3. 유동식(유영준 씨, 안숙주 씨의 아들)과 김현진(김세일 씨, 김남희 집사의 딸, 제16교구) / 11일(토) 13:00 건국대학교 동문회관

● 전회번호 변경

1. 김득래 권사 / 3481-8396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142	조현철	1	청년1부	이갑재(15)	1154	김서용	9	청년2부		1166	최진성	19	대학부	이봉규(4)
1143	국산식	1	한나		1155	정경순	9	청년2부		1167	신용식	19	대학부	정용동(19)
1144	정재향	2	청년2부	금옥연(7)	1156	최지영	10	청년2부	조창선(10)	1168	김성민	19	고등부	
1145	장계순	2	바울		1157	김은경	10	청년2부	조창선(10)	1169	박나운	19	중등부	박태순(3)
1146	정신숙	2	에스터		1158	김진선	11	청년1부		1170	민광근	19	청년1부	장연희(19)
1147	정혜녀	2	청년2부		1159	토마스	11			1171	김형준	11	요한	
1148	황진식	3	바울		1160	오명주	11	베드로		1172	김민복	10	소망부	조창선(10)
1149	김혜바	3	루디아		1161	임병호	15	베드로		1173	이동혁	19	청년1부	
1150	장호강	4	베드로		1162	이경숙	15	에스터	오길자(15)	1174	박원석	4	소망부	
1151	최혜녀	4	청년1부		1163	고옥영	17	바울	김효영(17)	1175	임종철	17	청년2부	
1152	이은정	4	청년1부		1164	신지은	19	대학부	양혜영(4)					
1153	황승진	9	에스터		1165	이란다	19	대학부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물음들

새벽에 만난 그분

이 소 현(권사, 1교구)

꼭 10년 전 일이다. 제1회 한국인 세계선교대회가 1988년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휘트칼리지의 빌리 그레함 센터에서 거행되었다. 한국과 미국의 교회에서 타문화권에 파송한 한국의 선교사들과 선교에 비전을 가진 목회자와 사명자들이 한국과 미국 전역에서 참석하여 대 성향을 이루었다. 1980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신은으로 선교의 소명 속에 살아오던 나도 초청장을 받고 남편과 함께 동참하여 새벽부터 밤까지의 모든 회회에 열심히 참석하였다. 투숙한 호텔에 대외 장소까지 셔틀버스가 운행되는데 어느날 새벽

나와보니 버스가 떠난 후이어서 아쉬운 마음으로 복도에 앉아 있었다. 남편은 피곤하여 객실에 들어가 쉬기를 원했으나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승용차의 주인도 선교대회에 가실 분임을 확신하며 남편이 제지할 틈도 주지 않고 손잡이가 달려 나갔다. 편승한 것은 물론, 달리는 동안 우리 내외를 대위 주신 고마운 그분과 주님 안에서의 만남을 감사드렸다.

10년이란 세월이 흘러 성향은 잊었으나 우리 원로목사님의 차남이시며 시카고에 거주하신다는 것만 기억되었다. 놀랍게도 10년 전 만난 그분은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 때문에 찬송이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예의 그 모습으로 작년에 위임목사가 되어 오셨다.

교회의 본질을 밝히고, 오직 복음의 진수만을 외치시며, 새로운 영적 변화의 기류가 일게 하는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본당에서 드리는 새벽기도회이다. 예나 지금이나 그분은 새벽에 감시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시 46:5)



금주의기도제목

- [1] 김창민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 [2] 동이촌 및 낙도 전도대와 수단등 단기선교팀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어진 일을 아낌없이 이루며 그 사역을 불꽃이 주셔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충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쁨과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 [3] 각 예배순서를 맡은 모든 일꾼들이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여 성령충만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하소서.
- [4]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열심히 참여 하소서.
- [5]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일어설게 하소서.
- [6]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잘 준비하여 각 부서가 은혜롭게 하소서.
- [7] 나라가 어려움 이때에 힘들고 고통스러워 방황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시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게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믿음중에 강건케 하셔서 치료하여 주소서.

- 원로목사 김창민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흥성 김희수 이종대 박경한 김동석 김필수 전형준 김재철 이승수 정갑진 정현민 조문환 조철수 김동하 차병준 김명태 김인식 권상현 서광진 이종현
- 협동부 윤영택 박형용 노봉린
- 선교사 이준교 안석원 김영대
- 감도사 이준경 박노철
- 원로전도사 이두만
- 여전도사 최순복 정연희 현정남 정복인 장영자 이태화 김경자 배옥민 최혜녀 손미희 송향자 신자우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숙희 현영준 박종화 박지자 김영숙 김복순 최영민
- 고정전도사 박양희
- 교육전도사 박만기 열현일 한승일 이종관 김영기 송원석 김창종 조재민 최진우 허용구 이후한
- 선교전도사 정성기 정은희 박태양
- 원로전도교사 유헌재 김형선 이기성 김철영 고은빈

7월 12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연주자

◆ 2부 · 4부예배

- 임마누엘여성증창단(지도/ 김희숙)
<찬양곡목>
- 왜 날 사랑하나
 - 날 향이오신 주님
 -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찬 469장)
 - 온 세상에

◆ 3부 · 5부예배

- 벨엘여성증창단(리더/ 박원주)
<찬양곡목>
- 주님과 같이(There is non like you)
 - 저 높은 곳을 향하여(찬 543장)
 - 내 모든 시련 무거운 짐을(찬 363장)
 - 감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찬 544장)